

한인회보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Chol Sik Chong, Publisher
Moon W. Kim, Editor
Phone: 767-7934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Vol. 9 No. 10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Nov./Dec. 1980



구독신청 및 광고 문의 767-7934



EAST-WEST TRAVEL SERVICE

SECURITIES BLDG. SUITE 635
1904 THIRD AVENUE
SEATTLE, WA 98101



IATA-ATC 공인

동서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밤
367-1935 밤

—영업안내—

- * 국내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월부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무료 서비스
- * 이민수속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무료 서비스
- * 공증업무 무료 서비스

* 국내및 국제 항공권 매입을 전화로 하시면 비행기표를 귀택으로 전해드리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표 이영호



1980년 정기총회를 끝마치고

본인은 지난 1년간 한인회를 대과없이 이끌어 왔으며 그 1년을 총결산하는 정기총회를 근태 보기 드물게 온화한 분위기 속에 끝내게 되었음을 고민 여러분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간 한인회를 좀더 발전적인 단계로 이끌지 못한 본인의 부덕과 무능을 고민 제위께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민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매년 똑같은 결과를 갖어올 것이 명백한 현실이니 그간 협조 없었던 고민 여러분들은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본인은 이 지역의 한인사회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나 해답은 역시 우리들 자신의 내적인 힘부터 우리 자신이 길러 놓은 연후타야 미국 정부의 혜택도 얻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써 한인회 직원 증원을 위해 반년의 세월을 고루하여 2명을 더 증원 받기로 했읍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C E T A 직원 채용 조건으로 자체자금으로 2명 이상의 직원을 갖인 단체타야 적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회의 그만한 자금 능력이 있읍니까? 없읍니다! 15불의 한인회비는

내지 않으면서 어느 정부기관에 무슨 자금 무슨 복지혜택이 있는 데 한인회에 서는 왜 받지못하느냐는 분이 있습니다. 우선 고민 여러분들이 다같이 협조를 재차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한인사회에 골목할만한 일이 있다면 한인회를 향한 총영사관의 물심 양면의 지원입니다. 한글학교 운영의 필요한 재원이 고민으로부터 나와야 할텐데 그게 되질 않으니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해준 자금으로 2세들의 한글교육이라는 훌륭한 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한인회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한글 타자기를 지원 받기위해 총영사와 면담했고 삼일절, 광복절등 기념행사를 치루기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영사관을 찾고 그리고 지원을 받았읍니다.

한인회는 고민들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위해 소수민족으로써의 권익옹호를 위해, 한민족의 빛나는 전통, 문화, 그리고 역사를 이땅에 뿌리 내리기위해 창설 됐으며 이를위해 역대 회장단, 이사, 임원들이 부단히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의 실현은 회장단과 이사 임원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질 않읍니다. 오직 고민 전체의 합심과 협조정신이 매말타 있음을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과없이 오늘까지 본인을 도와 한인사회에 크게 기여하신 한인과영업소 또는 사

업가 그리고 이사, 감사, 임직원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총영사님과 영사관 직원 여러분께도 한인회를 대표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 1년간을 때로는 보람찬 날들과 허탈한 심경, 경제적인 타격, 가사를 돌보지 못한 날들로 점철된 생애 가장 바쁜 한해였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한인사회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보다 더한 보람이 없겠습니다.

1981년은 고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한인회에도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980년 12월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정철식

압 령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정관 제4장 18 조에 의거 총회시 선출한 1981년도 회장단 및 이사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 합니다.

다 음

회장 : 강 동 언
부회장 : 최 봉 기, 박 홍 순.
이사 : 김 현 길, 서 광 선, 이 기 탁

1980년 11월 15일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 노 순 업

1980 년도 아리랑의 밤

한해를 또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고민과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씨애틀 고민 송년잔치 "아리랑의 밤"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갖으시길 바랍니다.

입시: 1980년 12월 20일 (토)

오후 7시 부터

장소 : 씨애틀 썬더 프랙트 파빌리언

내용 : 저녁 식사, 노랫 자랑, 경품 추첨, 댄스파티 등

입장료 : 1인당 \$ 10.00 (한인회

사무실, 한인업소에서 판매)

"정창군 약단, 많은 경품준비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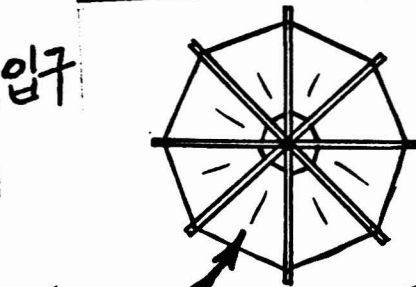
1980년 12월 일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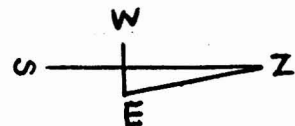
약 도

↑서쪽출입구

FLAG PAVILION
만국기 전당



SEATTLE COLUSIUM
실내체육관



감사합니다.

"아리랑의 밤" 경품 및 기부금자 명단

<p>멜로디 텔레비냉장고</p> <p>대표 : 신 일 수 품명 : 19 인치 칼라 티비 1대 MELO T.V. ☎ 839-7155, 952-5140 타코마 31319 Pacific Hwy S. Federalway 98008</p>	<p>오 대 양 식 품 점</p> <p>대표 : 임 용 건 품명 : 쌀 50파운드 2 포 ☎ 363-6850, 365-9844 543 NE Northgate Way Seattle</p>
<p>한 국 관</p> <p>대표 : 송 기 만 품명 : 5인가족식권 4장, 쌀50파운드4개 ☎ 622-1936 212 4th Ave So. Seattle 98104</p>	<p>현대식품</p> <p>대표 : 조 진 기 품명 : 정기밥솥 (15인용) 1개 ☎ 762-4792 10402 16th Ave S. W. Seattle</p>
<p>시 애틀 한국 여행사</p> <p>대표 : 홍 석 기 품명 : 여행용 가방 2 개 ☎ 623-9290 Bus, 322-3782 Res</p>	<p>중 앙 식 품</p> <p>대표 : 김 학 순 품명 : 한국 인영 ☎ 762-5620 9641 15th Ave S. W. Seattle</p>
<p>이 규 영 계 리 사</p> <p>대표 : 이 규 영 품명 : 고급꽃병 1 개 307 Broad St. (Seattle) ☎ 623-4181~3</p>	<p>Flower Studio</p> <p>대표 : 김 철 준 품명 : POINCITIA 2개 ☎ 325-5032 367-1534</p>

12월 12일 까지 접수 해주신분의 명단입니다. 이후 접수된 명단은 1월호 회보에 발표 하겠음

감사합니다.

"아리랑의 밤" 경품 및 기부금 자명단

<p>정문언종합보험</p> <p>대표 : 정문언 품명 : 고급시계 1개</p> <p>10059 Aurora N. Seattle ☎ 523-9111, 523-8944 (Res)</p>	<p>노명재산부인과</p> <p>대표 : 노명재 품명 : \$100.00.</p> <p>927-8440 1711 324th Pl Federal Way, WA. 98003</p>
<p>김여행사</p> <p>대표 : 김창성 품명 : 쌀 25파운드 5개</p> <p>603 Stewart St. Lloyd Bldg. #619 ☎ 624-2227 시애틀</p>	<p>101 바디샐</p> <p>대표 : 허남일 품명 : 12인치 흑백비비 1개</p> <p>10059 Aurora N Seattle ☎525-5778</p>
<p>그랜드 종합식품 상사</p> <p>대표 : 백웅기 품명 : 전기밥솥 (보온겸용) 1개 꽃쟁반 3개, 사보로라면 5박스, 기고만 간장 (19리터) 2개</p> <p>시애틀본점 : 8512 20th Ave. N. E. ☎525-8334 린우드지점 : 5405 196th S. W. 771-7226</p>	<p>시온 바디샐</p> <p>대표 : 최성욱 품명 : \$ 50.00.</p> <p>937-3113 5420 Delridge Way, W. Seattle, WA. 98106</p>
<p>1.2.3.세탁소</p> <p>대표 : 박춘석 품명 : 쌀 25 파운드 1개</p> <p>767-6270 900I Delridge Way, W. Seattle, WA. 98106</p>	<p>박약국 (그랜드 식품내)</p> <p>대표 : 박정일 품명 : 의사처방무료조제 1회봉사 차이나 로얄제리 1박스, 증 합비타민 1박스.</p> <p>8512 20th Ave. NE Seattle ☎ 527-3010</p>

12월12일까지 접수 해주시는 명단입니다. 이후 접수된 명단은 1월호 회보에 발표 하겠음.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역대 한인회 회장 :

- 초대 이창희 8대 구범희
- 2대 이창희 9대 신호범
- 3대 이선복 10대 김성길
- 4대 전계상 11대 김형진
- 5대 이현기 12대 김형진
- 6대 이현기 13대 조성욱
- 7대 한만섭 14대 정철식

1981년도 한인회 (15대) 회장



성명 : 강동연
 출생 : 경남 마산 1930년 8월 15일생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민국 육군 소령 제대
 TODD 현재 근무

한인회 회비납부를 바랍니다.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는 한인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회보발간, 사무실운영 기마 등등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 \$ 10.00 이고 한세대는 \$ 15.00 입니다. 보내실때에는 "회비" "기부금" 이라고 명기하여 주시고 수표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4順位 계속 열려

국무성이 밝힌 12월의 한국인에 대한 영주권권려는 다음과 같다.

- 1순위(시민의 미혼자녀) — 개방
- 2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 개방
- 3순위(전문직 종사자, 과학자, 예술특기자) — 개방
- 4순위(시민의 기혼자녀) — 개방
- 5순위(시민의 형제 자매) — 78년 22일 이전에 패디션 접수자.
- 6순위(취업이민) — 78년 11월 22일 이전 노동허가 접수자.
- 무순위(투자이민) — 폐쇄

아무리 부강한 나라 라도 (로마, 제정러시아, 나치독일, 영제국, 중국, 일본 제국, 월남) 사람의 지조와도 무이 허물 어질때 나라도 따라서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명백한 교훈을 받고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동포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에와서 경제적 기반구축에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부러워하고 할수 없으나 너무는 법기에 얽매서 부모봉양, 부부화합, 형제우애, 자녀교육 등포협동, 사회봉사등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일에 너무나 동한한 점이 많다.

돈은 언젠가 벌수 있지만 사람은 그때를 놓치면 영원히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인생백년의 한을 후일에 남기지 말아야한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지도기관으로서 한인회와 기타 각종 사회조직과 수다한 교회가 각지방에 총총히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대다수는 세력다름 명예다름으로 인한 파벌, 내분, 부정선거, 교회난립, 폐쇄주의, 목사전제 교인의 추종, 본파투쟁 등으로 인해 사회적 신임을 못얻어 과거 지도기능을 충분히 못함뿐 아니라 도리어 사회파동으로 조장하고있는 형편이라 사회정화와 친화와 단결에 그 기능 대로의 효과를 못 거두고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각 민족이 다 있어 부터 일찍이와서 살아 정치, 경제, 사회

각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우세한 입장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장 나중에 오고 가장 미약한 입장에있는 우리가 그 개인이나, 사회조직, 종교계 할것없이 사회적 파동만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언젠가지라도 선택의 타민족 뒤만 따라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유감은 각사회단체의 전미국적 연합운동이 수차례 걸쳐 한들 지역단체의 불찬성으로 성립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사회조직은 그 전체가 작은것을 모아 확대한 것이고 그 사명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전원과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그 존재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직의 연합과 그 영향력의 확대를 반대해야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 각 민족중 가장 약한 입장에있는 우리가 우리입장의 강화 강화발전을 기하자면 당연히 단결하여 그 신화력을 발휘해야 할데 민족의 총화단결과 총전진이란 대외명분에 반대할 한다는 일은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해도 민족총단결과 그 총전진에 지장을 주었다는 데 대한 죄책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수 없다. 옛날 고구려의 대수 당전이 이조의 이순신장군의 왜난평정 그 많기에와서 16년의 의병한일전쟁 삼일독립 이후 40여년에 미치는 광복운동, 우리 정부수립, 6.25 이후의 우리국토재건,

'87학년도 재외국민 교육원 모국 수학생 모집 지침 (요약 발췌)

1. 예비과정 입학희망자 (자비 수학생에 한함) 한국어 구사능력등이 부족하여 재외국민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예비과정 (1년) 을 수료한후 본과정 (고교, 대학) 에 입학 또는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교포자녀는 대사의 추천을 받아 87년 2월28일 이전에 동과정 입학수속을 필 하여 입국해야 한다.

가. 자격

재미동포로서 다음각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대사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 1) 미국 영주권 취득권자, 취득 예정자 미국 시민권자.
- 2) 관할 공간에 재외국민 등록을 필한자

나. 구비서류

- 1) 모국 수학 지원서 (소정 양식) 1부 .
- 2) 모국 수학생 기록부 (소정양식) 1부 .
- 3) 수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2부.
- 4) " 가 " 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다. 과정별 선발 대상

- 1) 고교 입학 예비과정 중학교 졸업 및 동 예정자
- 2) 대학 (원) 입학 및 편입학 고등학교 졸업 및 동 예정자 (대학졸업자 및 동 예정자)

2. 본과정 입학 또는 편입학 희망자

- 1) 모국어 구사능력 모국의 대학 과정에서 (예비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수학이 가능한자는 대사의 추천을 근거로 한 문교부장관 외 추천으로 과 대학 총 (학) 장으로부터 입학, 전편입학 허가를 받을수 있음.
- 2) 대학 1학년 입학허가자와 3학년에 전편입학한자는 선발고사를 거쳐 국비장학생이 될수 있음 (3항 참조)
- 3) 자격 및 구비서류 1의 " 가 " " 나 " 와 같음

3. 국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방법

- 1) 재외한국인 모국 수학생으로서 당해 학년도 과 대학 (원) 에 입학한 자와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장학생 선발고사 (매년 4월하순 시행) 를 거쳐 2년간 국비장학생이 될수 있음.
- 2) 대학과정 3.4학년의 2개년 국비장학생 선발을 재적대학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과정 1.2학년의 종합성적에 의하여 재외국민 교육원에서 선발됨.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분은 영사관 (682-0132, 0133) 으로 문의 바랍니다.



"성탄축하 연합음악제"

시애틀 바로마지역 4개 교회의 합창단들이 출연하는 "교회 연합 성탄축하 음악제"가 6일 화오 7시 시애틀 형제교회, 7일 화오 7시 바로마 중앙교회에서 양일간 열렸다. 중앙교회 지휘자 이수호씨와 형제교회 지휘자 윤한복씨가 오케스트라 추진해온 음악제는 중앙, 형제교회, 양교회의 합창단 전원과 북음교회 및 선교교회 합창단 일부가 출연, 형제교회는 주로 합창을, 나머지 교회는 독창과 중창을 담당한다.

"한국 가곡의 밤대성황"

워싱턴주 음악회 동우회가 주최하는 제 1회 한국 가곡의 밤 시애틀 공연이 29일 화오 7시부터 약 1시간반동안 시애틀 콘서트홀에서 많은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바르타코프인은 13일 화오 7시 대와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콘서트홀 아택 위층 좌석이 팔차고도 자리가 모지란 가운데 김순임, 이희경, 윤한복, 김영희, 이영혜, 최순복, 김화영, 오경아, 김미경, 박창훈씨 등 10명의 성악가들과 피아니스트 권명옥, 이혜연, 윤문자, 유영자, 송인옥, 오혜원씨의 반주로 김성태곡 "이별 외노태" 등 순 한국 가요 20곡을 불렀다. 그런다음 윤한복씨의 지휘로 원중이 모

두 함께 "나의 삶던 고향"을 합창한 다음 다카포로 이남행사가 끝났다. 이남행사에 대해 교포들은 이구동성으로 뜻있는 행사이며 매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북부 상사지사 월례정기 모임"

미서북부 상사지사협의회 (회장 박성복)는 10월 30일 상오 11시부터 시애틀 퍼스트 내셔널 뱅크의 보디 디렉터룸에서 월례 정기모임을 갖고 동은행에 피어슨 박사로부터 미국 경제전망에 대한 강연과 황수철 (은행국제부 아세아담당) 씨로부터 동은행의 역사와 업무내용을 소개 받았다. 이 자리에는 동은행의 조셉 커티스 부총재가 참석하여 환영인사를 했으며 이날 협의회와 월례모임을 겸해 은행축이 마련한 런천 프로그래머는 장운걸총영사 공송민 부영관장 및 과지사장들이 참석했다.

예배 제후

한결같은 우리의 반경, 이는 우리의 대동단결에서 성공한 우리의 역사적 사실임을 명심하고 우리다 애국했던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는 우리되기기를 두손모아 비는 마음 간절하다.

(시애틀-한국 예술협회 명예회장, 캐나다 서북부 문인협회 고문)

"워싱턴주 직업 안전국에서 여러분께 안내합니다."

씨애틀 지역에 개인고용여러분께서 직장을 원하시거나 근무중 해직이 되셨을 때는 주정부 직업안전국 산하 과 직업사업소 (Employment security Dep't, Job service center) 를 찾으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씨애틀 지역에서 한국고민이 있는 사무실은 south west Job service center 이며 아택 빌딩까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 직장을 찾으시는 분에게는 매일 오전중 바뀌는 컴퓨터에 실린 직장안내 명단을 보시고 본인이 가장 적합한 직장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 직장근무중 해직되었을 때 실업보험을 바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자문요건, 지급금액, 기간등을 소개하겠습니다.

- (1) 워싱턴주에서 근무하셨거나 바주에서 근무하셨거나 상관없이 본사무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과주마다 주법이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워싱턴주 법률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자문

1. 잃어버린 직장이 실업보험세를 부담하는 업무에게서 근무하여

아 합니다. (자기사업이나 임시현금을 지급받고 있는 곳은 불가함)

2. 근무시간

과거 1년간 680시간을 초과 근무한 후 임시해직 (Layoff) 타고 들었습니다. 을 당했을 경우는 무조건 보령금을 바실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이란 실업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업보험을 신청당시 들기준 당해분기를 포함 과거 2분기 이전까지 1년간을 산정합니다.

(예 12월 1일 신청하신다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 사이에 68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실업의 종류

임시해직 (Layoff) 자는 무조건 자격이 있습니다. 자퇴에 경우는 가정사정에 의해 불가피하다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임시사퇴를 하였을 경우 정상을 심사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고용주측에 의해 회사규칙에 위반되어 해직되었을 경우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청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지급금액

상기한 1년간에 소득금액총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주금으로 지불합니다. 즉 바올금양용액은 자기 수입보령금을 전부 지급 받았을 때 까지며 주당지급 금액은 3개월

간 봉급의 4%로 하여 주급 150불 한도
이내입니다. (예 : 월 1000불
소득자가 1년을 근무하였다면 주당지
급액은 3000 X 4% = 120불 이고 최고
수령금액총액은 12000 X 1/3 = 4000불
까지 이므로 주 120불씩 33주 (약
7개월) 까지는 받을 수 있음)

5. 신청 방법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직업안정
국 사무실에 가서 신청합니다.

씨애틀 지역에서 언어문제가 있으

신분은 상기한 south west job

service center로 오셔서 신청하

시면 언어 문제 등 도와 드립니다.

신청은 해직후 즉시 하는 것이 좋

며 영주권, 소시업씨를 어리미카드

해직 통고서류 및 근무하신 직장

이름, 주소, 정확한 근무기관 등

을 지참해 주십시오.

6. 의무 사항

신청서류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실업증에는 반듯이 직장을 찾아

야 하며 신병, 학업, 다른 곳으로

떠날 경우 다른 곳에서 수입이 있을

경우 등 모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주 본인이 직장을 찾고 있

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기타 사항

상기한 680시간은 워싱턴주 내에서

근무한 것까지 포함되어 현재와 같이

실업률이 높을 시는 상기산정금액의
본주에서는 13주를 더 연장 주정부에
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특히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에 관하여 말씀
드렸으나만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직장
복귀의사가 없으면 자격이 없다는 것
을 거듭 강조 드리며 기마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기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South West Seattle Job Service
Center 8830 25th Ave S.W.
Seattle, WA. 98106

TEL : 764-4331 - 4334

민 병 남

매 매

떡 방아기계, 두부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단독영업 혹은 증업을
원하시면 연락하여 주십
시오.

연락처 774-8356

총회시 회비 납부자 명단 (11월 15일까지)

당 병식 \$15.00.	양 관영 \$10.00.	이 진용 \$15.00.	박 정신 \$15.00.
호 기평 \$15.00.	민 광기 \$15.00.	박 약국 \$15.00.	김 은영 \$10.00.
김 도영 \$10.00.	조 진환 \$5.00.	당 석훈 \$15.00.	서 정호 \$15.00.
박 유철 \$15.00.	홍 희선 \$15.00.	정 창근 \$15.00.	유 영화 \$40.00.
변 영수 \$15.00.	장 진섭 \$15.00.	양 관용 \$5.00.	이 뒤상 \$15.00.
정 희택 \$15.00.	한 인희 \$15.00.	이 종택 \$5.00.	해식스 미스 \$15.00.
박 인구 \$10.00.	백 유현 \$15.00.	조 철규 \$15.00.	이 규진 \$15.00.
윤 윤복 \$10.00.	엄 종훈 \$10.00.	윤 병두 \$15.00.	윤 홍규 \$10.00.
이 영규 \$15.00.	최 용주 \$10.00.	강 태원 \$15.00.	강 손식 \$15.00.
이 종택 \$10.00.	백 동환 \$15.00.	신 김범 \$15.00.	박 춘석 \$15.00.
장 창호 \$15.00.	이 의성 \$10.00.	김 영봉 \$10.00.	김 한규 \$15.00.
임 무 \$15.00.	허 권 \$15.00.	김 상희 \$15.00.	박 영근 \$15.00.
박 재철 \$20.00.	서 홍록 \$15.00.	서 병후 \$5.00.	성 기봉 \$10.00.
박 봉영 \$15.00.	서 근후 \$15.00.	조 차영 \$10.00.	유 병부 \$15.00.
서 병식 \$15.00.	우 영철 \$10.00.	윤 한복 \$15.00.	박 봉수 \$15.00.
신 부식 \$15.00.	송 금봉 \$20.00.	윤 찬영 \$30.00.	장 흥섭 \$15.00.
김 용섭 \$15.00.	의 창재 \$10.00.	황 동규 \$15.00.	남 재현 \$45.00.
백 정무 \$45.00.	백 정무 \$15.00.	조 제국 \$10.00.	박 현택 \$10.00.
연 창모 \$15.00.	전 명희 \$10.00.	김 구영 \$15.00.	김 성화 \$10.00.
백재영 \$10.00.	최 선기 \$20.00.	조 천석 \$15.00.	권 성오 \$15.00.
강 인철 \$15.00.	임 필수 \$10.00.	이 용대 \$15.00.	이 유신 \$25.00.
권 용성 \$30.00.	백 도성 \$20.00.	최 창만 \$10.00.	서 은 \$10.00.
백 인기 \$10.00.	김 두영 \$15.00.	김 해봉 \$15.00.	박 용서 \$15.00.
구 수암 \$15.00.	김 중호 \$10.00.	김 병식 \$10.00.	김 현택 \$10.00.
신 복산 \$15.00.	이 종현 \$15.00.	허 영 \$15.00.	허영 \$20.00. (건축 4금)

윤인환 \$15.00.	이규용 \$10.00.	홍민기 \$20.00.	이규명 \$10.00.
이용명 \$10.00.	송면식 \$10.00.	홍진표 \$10.00.	최훈 \$10.00.
최인식 \$15.00.	김준영 \$15.00.	노인건 \$10.00.	변재환 \$15.00.
박미원 \$10.00.	오계희 \$15.00.	오운복 \$15.00.	김기준 \$15.00.
김평기 \$15.00.	송경호 \$25.00.	전용상 \$15.00.	강상열 \$25.00.
이형상 \$15.00.	김재호 \$15.00.	박진문 \$15.00.	성수경 \$15.00.
권영길 \$15.00.	조병우 \$30.00.	박명준 \$10.00.	김관수 \$10.00.
이석범 \$15.00.	남종석 \$15.00.	박건홍 \$15.00.	서정산 \$15.00.
윤유노 \$15.00.	안기혁 \$15.00.	강철식 \$20.00.	홍영종 \$15.00.
손달수 \$15.00.	김성기 \$15.00.	정경화 \$10.00.	김병철 \$10.00.
김택선 \$10.00.	정수은 \$10.00.	전성원 \$10.00.	이점택 \$15.00.
최창식 \$15.00.			

건축기금 : 무명씨 \$22.00.

"한인회비 : \$2045.00. 건축기금 : \$42.00. 합계 : \$2087.00.

한인회 발전을 위해 과중기금 보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한인회비, 건축기금, 특별기금, 한글학교 기부금,
 한인회보 광고 참조금, 한인회 행사시 현품 기증 등 회사품액 대한 영수증이
 발송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소불명, 성명 불확실등 관계로 미발송 또는 반
 송송된 것이 있어오니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67-7934)
 한인회보는 매월 1,500부 발송되고 있습니다. 벌크메일은 주소가 잘못 기재
 되어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1부의 회보라도 억실되지 않도록 주소변경명은
 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11월 15일) 시 이후 회비 납부자는 12월발행 영수증 발송 예정입니다.

정직과 친절 봉사 하는

현대식품



고깃간

그랜드 오픈ing 대서원!

즉석에서 원하시는 대로 설어 드림니다

- ◆ 최상급 등심불고기 ◆ 갈비 ◆ 삼겹살
- ◆ 곱창 ◆ 무릎뼈 ◆ 양 ◆ 천연

가중 식품 및 새시른



새시른
 새활필수품
대환영

- 각종 동양식품
- 등심불고기 갈비
- 서적 판매 및 대여
- 귀국 선물 선카

◀영업시간▶

아침 9:00 ~ 저녁 9:00 년중무휴

762-4792

10402 16th AVE S.W
 싸우스 웨스트 화일센터



MIDWAY UNION
SERVICE (GAS) STATION

23845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SHINGTON 98031
TEL: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 ** 자동차 정비 일체
- * Tune-Up * Brake * Electric * Engine Overhall
- ** TIRES ** BATTERIES
- ** 도요다 닌스 혼다등 외국차 전문
- 2월부러 새로운 Service로 시작한 저희 Station을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성실껏, 풍부한 경험의 기술진으로 책임수리하고 있습니다.

김 명 환

영 화 랑 | 각종 표구 전문 (자수, 서예, 동양화, 서양화, 액자)

글동품 전문 (Antique)

초상화 주문

연락처 BUS 625 - 0872 (09:00 - 5:30 (±) 2:30)
RES 767 - 5825

주소 2034 2nd AVE 98121 (다운타운)

" 취미 : 바둑 "

김 현길 박사
(지리학 전공)

밥이 깊어가니 바둑을 두고 싶은 생각이 절로나고, 바둑생각을 하면 한국의 추억이 새삼스럽다. 바둑과 한국은 나눌수 없는일만 같다. 바둑이 취미가 된지는 중학교 때 부터였으니, 약 삼십여성상의 세월이 지났으나, 나는 아직도 초보자에 불과 하다. 심오한 진리와 수만가지 수를 알지 못하면서 대결 하기만 하면 지는 데도, 나는 아직도 좋아 하니 취미는 단단히 든 샘이다.

바둑을 두면서, 옛날의 친구들 얼굴을 삼삼오오로 기억할수 있고, 학창시절과 근대생활을 더듬을수 있으며 사회부 기자 생활 하던때의 때가 새삼스럽고, 씨 애플의 (히피) 와 미국학생들과 같이 두면서 워싱턴 대학교 바둑 클럽에 나가던 날들이 어제만 같다.

(멋) 바둑의 이치가 끝이 없이 많아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년을 대국 하였어도 똑같은 판은 나올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좋아 하는 바둑은 심오한 것도 못되고, 속기로 빨리 두는 식이다. 나는 바둑의 모양을 (맵시) 무엇보다도 좋아 한다.

그 모양은 마치 예술작품인 것도 같다.

그리고 그 급소 들을 감탄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을 상수들은 맵이라고 부른다.

죽 사람에 비하여, 그 맥을 잡았으나 아니면 잘못 잡았으나 에 따라서 그 죽고 사는 일이 결정 된다.

바둑 두는 솜씨에도 여러가지 성격이 들어나서 몰흐르듯이 두는 사람에, 육탄용사와 같은 방법, 도망가는 듯 하면서도 나중에는 이기는 사람, 낚시밥 먹이 듯한 방법, 권투선수 같은 기술, 실리 주의자, 침착한 태도에 반하여 건망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국사람들이 호구를 잡아서, 미국사람들 까지도 TIGER MONTH 라고 한국식 바둑의 영향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얼) 한국에는 (어린이 바둑왕전) 이 있고 고 고생 바둑대회 가 있으니 부럽다. 장족의 발전이 분명하다. 국내의 80명전문 기사중에 이 고고생바둑 대회 출신이 30명에 달한다. (일본에는 초단 이상의 유단자가 약 20만명에 (프로) 기사가 약 300명이나 된다.) 역시 연조가 필요한 취미이고, 젊 떨어지면서 부터 둔 바둑으로 대기사가 된 분으로 조치훈이 있다.

바둑은 평생수업인 것이다.

바둑이 좋은 다른 이유는 노소동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사상이 절었던 한국사회서 어른과 어린이가 어울릴 기회란 드물었던것이고,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다같이 둘수 있기 때문이다.

멋 점을 먼저놓고 둘수 있는 오락이나 취미는

바둑밖에 없는 줄로 안다.

두 귀신이 바둑을 두었다 : 흑을 쥔 귀신이 첫 돌을 놓자, 백을 쥔 귀신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돌을 놓지도 않은채 (내가 졌네) 하고 항복을 했다. 바둑 한판을 두자면 보통 230수 가량 걸린다. 그것을 전부 내다 볼수 있다면 먼저 돌을 놓은 (흑) 이 이기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에 바둑을 전하고 가르쳤으나, 천년세월이 지나간 오늘 날에는 그 입장 마저 달려 졌다. 일본은 400여년 동안 국록을 주어 기사들을 보육해 왔고, 마침내 세계제일의 바둑 왕국이 된것이다.

그 러나 24세의 조 치훈 8단과 일본의 (오오 다케 38세) 9단 사이의 (명인전) 에서 첫번째로 조 치훈 8단이 승리를 거둔 일은 반가운 일이었다. 유럽의 13국에서 활약했던 한국 기사들의 승리는 놀라웠고 중공의 선수에게도 한집차이로 이겼으니 자랑스럽기만 하다.

이런 때문인지 와싱톤 포스트지도 조 치훈 8단을 극찬하였으니 한국의 자랑이 많일수 없다.

" 뜻 "

바둑책에는 위기십결에 작은것을 버리고 큰것을 취한다는 말이다. 나는 새로 출범하는 한인회에 대하여도 이 말은 권면하고 싶어진다.

사소한 싸움은 없었으면 좋겠고 할일많은 고포의 장택를 심각하게 생각하였으면 좋겠다. 바둑에는 상대방 급소가 나의 급소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도 이해하고 타협하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처하고있는 이곳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심성있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진지한 바둑의 자세가 부럽다. 한인회는 어머사람의 것이다.

한인회는 회원을 제일 첫째로 아끼줄 알아야하며 밖으로는 고포사회를 대표할수 있어야하고 한국인의 긍지를 높여야한다.

바둑의 방심한 태도는 지는 일이고 한인회에 대한 무관심도 실패의 침단이고 자학의 노출이며 이민 역사의 수치인 것이다.

참여의식이 높을수록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성공이 가능하다.

투고 환영

한인회보는 약 1,500부 발송되고 있습니다. 고 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정성스런 원고는 성의껏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5일까지 한인회 사서함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민한 생활 정보나 문예작품, 논설, 기바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순열 부동산



EQUITY EXCHANGE



부동산 거래의 성패는 AGENT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택. 상가. 아파트. 매매
중개. 전세. 주택. 개량.
주방. 개조. GENERAL CONTRACTOR
(건축 허가. 신. 증축공사 시공)

전화: (206) 763-0341 (사무실)
542-7977 (집)

영업안내

- 지붕수리
- 울타리공사
- 호마이카
- 롱크리트
- 정원정비
- 타이루공사
- 카비넬
- 배관. 전기.



*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야 771-8019

3825 - 191st S.W.
LYNNWOOD WA. 98036

산부인과 전문의 로 명재 M.D. (ROE, MYONG J.)

Diplomate, American Board of
Obstetrics - Gynecology

Fellow,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 Gynecologists

일반산부인과 · 불임증 전문

※ 임신중절은 하지 않습니다.

월 화 금요일

201 N. DIVISION ST
AUBURN, WA 98002
< 833 ~ 2580 >

Appointment 에
의해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9.30 A.M.
|
5.30 P.M.

수요일, 토요일

1711 324th Pl.
Federal Way, WA. 98003
< 927-8440 >

변호사 윤영일

미국명 : EDDIE YOON

- 전 타코마시 검사 -

- 이민, 가정문제, 자동차사고, 상해
세법, 취중운전
- 민사, 형사, 국제상사관계, 법률일반

● 사무실

SUN PLAZA BLDG. SUITE A-4
10209 BRIDGEPORT WAY S. W.
TACOMA, WASH. 98499

● 전 화

타코마 : (206) 582-7996
565-6005



여행의 상담자

김익여행사



대표 김창성

CP Air
Canadian Pacific



모국방문 특별할인

귀국선물 안내

공증 업무 취급



Advance
Properties

각종사업투자, 주택매매알선

BUS: (206) 624-2227 / 624-2228

RES: (206) 364-9934

Kim's Travel Service
ROOM 619 603 STEWART LLOYD BLDG.
SEATTLE, WASHINGTON 98101

정문언 종합 보험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GOOD STUDENT DISCOUNT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 NON 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Bus) (206) 523-9111

(Res) (206) 523-8944

Moon Choung Agency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스튜디오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 · 약혼식 꽃
- 실내용화초
- 각종 축하용화분
- 장례식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 전화만주시면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 BUS : 325-5032 RES : 367-1534

"보점"
 Woong Ki Baik
 8512 20th N.E.
 Seattle, Wash. 98115
 206-525-8334

그랜드 식품

Dan & Jean Kim
 5405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206-771-7226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나 날이 발전하는 시에들 교민 여러분 속에. 저희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민의 맛을 성심껏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常



감사 합니다.
 결비와 물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합니다."

인삼코너

情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1725 S.W. Roxbury St. Seattle, Wa 98106
 767-793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NON-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 AMERICAN COMMUNITY SINCE 1967